

漢字의 의미자질을 찾아서

허성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 무엇이 문제인가?

조선시대가 끝나기 이전까지 한자는 우리 언어생활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특히 쓰기 문화는 거의 모두가 한자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쓰기란 사물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며, 사물에 대한 판단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조선 말기 이전까지의 우리 문화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한문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자 교육이 배제되어가는 지금의 상황은, 불과 1세기 이전까지의 우리 문화의 상당 부분을 외국 문화 혹은 특수 문화로 단정지으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첫째, 한자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 한자 사용이 우리말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며, 셋째, 한자가 배우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문화적 결벽주의에 의한 배타적 사유의 소산이다. 이러한 견해로는 문화는 왜 이질적 복합적 요소의 섞임에 의하여 발전해가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고구마와 감자를 우리가 왜 먹어야 하는지도 설명할 수 없다. 적어도 이천 년 이상 사용해오면서 그것이 남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문화적 결벽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말의 범위의 문제이며, 우리

말의 발전의 모델에 대한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유는 한자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국학을 연구하기 위한 전적의 86.52%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자의 수는 1,000자이며, 95.57%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자의 수는 2,000자이다.¹⁾ 이는 1,000자 내지 2,000자의 한자로 상당량의 고전적(古典籍)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정도의 한자를 학습한다면 현대의 우리말에 사용되는 한자어의 상당부분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²⁾ 이러한 정도의 한자를 교육하거나 학습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장은 교육해야 할 한자의 수에 관한 한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한자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 자형과 의미의 무관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한자는 상형성을 가지고 있다고 운위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자의 자형을 보고 그 의미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日, 月'과 같은 극소수의 한자를 제외하면 자형으로부터 의미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한자의 자형은 거의 모두가 하나하나의 독립적 기호로 이해되고 있다. 한자가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2. 한자의 의미자질

고대의 중국인들은 사전을 통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았다. 이는 곧, 고대의 중국인들은 한자의 자형을 보고 그 의미를 이해 혹은 추정할 수 있었거나, 최소한 어떤 한자의 의미에 대한 학습을 받고 나면 그 의미와 자형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자형과 의미의 관계가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하다면 그 한자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1) 허성도(1998)를 참고할 것.

2) 김홍규(1999), 남윤진(1999)를 참조할 것.

따라 서서히 도태되어 갔을 것이다. 이는 역으로, 현존하는 한자의 자형과 의미 사이에는 그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들의 보편적 동의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 근원은 그들의 언어에 대한 보편적인 사유형식, 나아가 그들의 사물에 대한 보편적인 사유형식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고대 중국인의 보편적 사유형식을 이해하는 길을 찾아가 보기로 하자.

다음은 ‘貴’를 구성 요소로 한 한자들이다.³⁾

貴, 蕘, 饋, 櫃, 潰, 攢, 贖, 贖, 饋, 鬻, 遺

이 한자군이 우연히 ‘貴’를 구성 요소로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따라 문자가 생성되었고, 그 문자의 형태가 최소한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데에 동의한다면 위와 같은 漢字群에는 최소한의 의미상의 연결성이나 최소한의 음성적 연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 한자군의 의미이다.⁴⁾

貴 : 귀하다

蕘 : 삼태기

饋 : 옷고름

櫃 : 상자

潰 : 무너뜨리다

攢 : 잡아 당기다

贖 : 시각장애자

贖 : 청각장애자

饋 : 타인에게 음식을 보내다

鬻 : 상투

遺 : 버리다 남기다

이상의 한자들은 모두 ‘貴’를 구성 요소로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한자의 의미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貴’의

3) ‘貴’를 구성 요소로 하는 한자는 29자 이상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중의 일부만을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룬 한자 이외의 것들도 모두 이 글에서 논의하는 내용과 부합된다. 상세한 것은 허성도(1996)을 참고할 것.

4) 이 의미는 원의미(Original Meaning)라고 판단되는 것들이다.

의미를 ‘귀하다’라고 전제하면, 위에 제시한 漢字群의 의미가 어떠한 원리로 생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의미 사이에도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이제 그러한 질서를 찾기 위하여 ‘貴’의 甲骨文을 보기로 하자.



위의 그림은 ‘貴’의 甲骨文인데, 이는 ‘땅 위에 있는 어떤 물건을 두 손으로 들어내는 모양’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하는 중국인의 내면적 언어의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 유형이 설정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1. 들어내다
2. 들어내어 제거하다
3. 들어내어 다른 곳에 두다
4. 들어내어 다른 것보다 드러나게 하다

필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貴’의 의미자질이라고 본다. ‘들어내다’는 위의 甲骨文에서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개념이다. ‘들어내다’는 ‘제거’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들어내어 다른 곳에 보관함’을 의미할 수도 있고, ‘들어냄으로써 다른 것보다 드러나게 함’을 뜻할 수도 있다. 하나의 동작을 나타내는 한자가 그 동작의 後行動作, 그 동작의 結果로 나타나는 현상을 동시에 의미로 취하는 현상은 대단히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가 ‘貴’의 의미자질이라면 위의 한자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는 ‘貴’ 이외의 구성 요소와 ‘貴’의 의미자질의 결합을 나타낸 것이고, () 안의 설명은 의미자질이 의미로 변환되어 가는 과정을 유추한 것이다.

- 貴 : [들어내다]→(선택하다)→귀하다
 蕘 : [풀+들어내다]→(풀로 만든 들어내는 물건)→삼태기
 襪 : [옷+들어내다]→(옷을 제거하는 것)→옷고름
 櫃 : [나무+상자]→상자
 潰 : [물+들어내다]→(물로 제거하다)→퀘멸시키다
 攢 : [손+들어내다]→(손으로 제거하다)→잡아 당기다
 瞶 : [눈+들어내다]→시각장애자
 聵 : [귀+들어내다]→청각장애자
 饋 : [식품+들어내다]→타인에게 음식을 보내다
 鬢 : [긴 머리털+들어내다]→(머리털을 모아 위로 드리냄)→상투
 遺 : [천천히 가다+들어내다]→(천천히 가서 제거하다)→버리다5)

이상의 논의는, '貴'를 구성 요소로 하는 한자군의 각 의미는 결국 '貴'의 의미자질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甲骨文으로부터 의미자질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다음을 보자.

蝶 : 나비	諜 : 엿따하다
蝶 : 가자미	葉 : 잎사귀
襪 : 홑옷	牒 : 편지
牒 : 작은 배	喋 : 성위에 낮게 쌓은 담
喋 : 집다	喋 : 재잘거리다.
喋 : 밟다	喋 : 흠어지다
碟 : 가죽을 다루는 도구	碟 : 쇠조각
躒 : 각지	僕 : 가볍다
蹶 : 앓다	爍 : 데치다
楫 : 평상	爍 : 문란하다

5) '遺'의 또 다른 의미인 '남기다, 남다'는 '버리다'의 후속 상태를 의미화한 것으로 보인다.

擘 : 맥을 짚다

縹 : 고삐

이상의 한자군은 모두 '擘'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자의 甲骨文은 찾을 수 없다. 이 경우에 '葉'의 의미자질을 추정하기 위하여 '葉'이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 한자인 '葉'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자.

A : 초목의 잎, 뽕나무, 갈래, 가지, 세대, 시대, 종이, 표, 책

B : 쓰레반기의 앞 부분, 종이, 평평하고 얇은 것, 납작하고 작은 것의 비유, 손가락의 끝, 짧은 홀옷

C : 떨어지다, 누르다, 모으다

D : 성(姓), 지명

이상은 '葉'의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눈 것이다. 이 중에서 우리는 특히 B류에 유의하기로 하자. B류에 속하는 의미는 모두 '얇음'과 관련이 있다. 이에 유의한다면 본의인 '초목의 잎'도 '얇음'과 관련이 있으며, 동사의 모임인 C류도 '얇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상기한 한자군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자.

蝶 : [얇음+벌레]→나비

諜 : [얇음+말]→염탐하다

鱧 : [얇음+생선]→가자미

襪 : [얇음+옷]→홀옷

牒 : [얇음+판자]→편지⁶⁾

牒 : [얇음+배]→작은 배

擘 : [얇음+흙]→성위에 낮게 쌓은 담

擘 : [얇음+손]→(손으로 얇게 하다)→접다

喋 : [얇음+말]→재잘거리다.

6) 竹簡이나 木簡을 생각할 것.

- 躒 : [얇음+발]→(발로 얇게 하다)→밟다
 渫 : [얇음+물]→(물이 얇게 흐르다)→물이 새다
 蹠 : [얇음+돌]→(얇은 돌 혹은 도기)→접시
 鑠 : [얇음+쇠]→쇳조각
 僕 : [얇음+사람]→억누르다
 爍 : [얇음+불]→(얇은 불로 하는 행위)→데치다
 櫟 : [얇음+나무]→평상
 縹 : [얇음+실]→얇은 실→고삐
 撲 : [얇음+손]→(손으로 얇게 하다)→(누르다)→맥을 짚다
 鞞 : [얇음+가죽]→얇은 가죽→각지
 僕 : [얇음+사람]→(사람을 얇게 하다)→억누르다
 蹠 : [얇음+부서진 뼈]→(뼈가 얇게 부서지듯 하다)→얇다
 嫫 : [얇음+여자]→(얇게 눌린 여자)→문란하다

이상은 ‘葉’의 의미자질이 ‘얇음’이며, ‘葉’을 구성 요소로 취하는 한자군의 모든 의미는 이 의미자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

이 글은 지금까지 한자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온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한자의 의미자질을 탐색해 온 결과를 제시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상징적인 두 가지 예만을 지적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는 적지 않다. 향후 이러한 작업이 계속된다면 한자의 자형과 의미의 관련성은 상당 부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분야의 학문을 漢字意味論이라고 부르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홍규(1999). 「국어생활의 한자 사용 빈도 연구」. 『새국어생활』 제9권 제1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남윤진(1999). 「국어사전 표제어의 한자빈도」. 『새국어생활』 제9권 제1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허성도(1996). 「漢字意味論序說」. 『省谷論叢』. 제27집 1권. 서울: 성곡학술재단.
- 허성도(1998). 「한자사용빈도조사」. 연구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연구원.